

A형 간염에 동반된 급성 세뇨관 괴사 1예

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소아과

이 주 훈 · 박 영 서

서 론 : A형 간염은 대부분 경과가 가벼우며 합병증 없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인다. A형 간염 후 급성신부전이 동반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. 저자들은 A형 간염과 동반된 급성 세뇨관 괴사 소견을 보인 환아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.

증 례 : 평소 건강하던 13세 여아로 내원 9일 전 학교 수련회 다녀온 후 구토와 식욕부진이 지속되어 내원 3일 전 동네 병원에 입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BUN/Cr 70.2/4.7 mg/dL, AST/ALT 1,104/>1,375 IU/L로 상승되어 있어서 본원으로 전원되었다. 내원 당시 혈압은 149/80 mmHg였고 핏뇨는 동반되지 않았으며 체중 증가나 부종도 보이지 않았다. BUN/Cr 78/6.5 mg/dL, AST/ALT 111/449 IU/L, 총 빌리루빈/직접형 빌리루빈 2.9/1.4 mg/dL이었다. 요검사상 알부민 음성, RBC 3-5/HPF, amorphous urate (+)이었고, HAV IgG/IgM (-/+), HBs Ag (-), HCV Ab (-)이었다. 신초음파상 신피질의 메아리발생이 증가되어 있었고, 신조직 검사상 급성 신세뇨관 괴사 소견을 보였다. Amlodipine 투여하면서 혈압은 조절되었고, 이후 BUN/Cr 12/1.1 mg/dL, AST/ALT 36/78 IU/L로 호전되어 퇴원 후 외래 경과 관찰 중이다.

결 론 : 저자들은 합병증 없이 자연히 호전된 A형 간염과 동반된 급성 세뇨관 괴사 소견을 보인 환자 1예를 보고한다.